2025. 11. 24

# 금융 Weekly Insight

## 물량 앞에 장사 없지만, Valuation 측면 방어력은 확인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11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Senior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박준규 Analyst jun.kyu.park@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미국 발 AI 중심 증시의 연이은 급락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
- 금융주 또한 시장과 유사하게 하락, 다만 Valuation 측면에서 부담이 적고 결산 배당 등이 존재하는 일부 종목 주가 방어.
- 금융주의 방어력은 일정 부분 검증된 가운데, 향후 관건은 주가의 상승 여력 혹은 모멘텀이 될 전망. 이와 관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연말 전에 선결되어야 할 event들에 초점 필요.


##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4.1% w-w 하락하며 KOSPI 3.9% w-w 하락대비 underperform. 미국 발 AI 중심 증시 조정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도 이의 영향에서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판단. 그러나, 은행주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은행주의 Valuation 및 주주환원 측면에서 방어 여력, 그리고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일부 event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특히, 1) 상법 개정에 따른 분리과세 이슈와 2) ELS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관건 전망인 가운데, 1) 최근 증시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판에 대한 니즈와 2) 국내 가계의 증시 투자 활성화 니즈, 그리고 3) 은행의 26년 차질 없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자본비율 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다 우호적인 결과물의 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 증권 - 증권업종은 7.4% w-w 하락하며 KOSPI를 underperform 하였음. 증권 업종의 경우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국내외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차익실현 니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연말 금리 상승에 따른 운용손익 축소 가능성 등 펀더멘탈 우려 또한 중첩되고 있음. 다만,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11월에도 일평균거래대금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 거래대금 견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증시 방향성 턴어라운드 시점에는 다시 증권업종 주가 또한 회복 탄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 관점에서 접근이 타당.
- 보험 – 보험업종은 5.6% w-w 하락하며 KOSPI를 underperform 하였음. 전주에 이어 손해보험사들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출혈경쟁 지속으로 위험손해율 악화 만성화 우려에 따른 실적 우려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보험사들의 손해액 증가 추세는 26년에도 일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긴 호흡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국면으로 판단. 다만, 손해율을 제외한 K-ICS, 자산운용수익률 등은 금리 상승에 따라 오히려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섰기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 Sector | News | Implication |
|---|---|---|
| 은행 | **(11/17) 금융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추진에 은행은 난색**<br>- 금융위는 이르면 연내 은행권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 유도를 위한 방안을 발표 예정. 현재 은행들의 고정형 주담대는 5년 주기형이나 혼합형을 운영 중이지만, 이를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고정형 금리 주담대를 내놓겠다는 것.<br>- 은행이 고정금리부 주담대를 5년 주기형 주담대로 운영하는 이유는 은행채 10년물 이상은 발행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경쟁력이 없기 때문. 이에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부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 가능하도록 할 계획.<br>- 반면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는데, 이유는 고객 수요가 낮기 때문. 신한은행이 8월 출시한 10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월 판매액이 8억원 미만에 그쳤음. 금리도 상하단이 모두 6개월 변동금리부대비 32bp 높게 나타남. | **은행은 쉽지 않은 결정 - 대출 갈아타기로 인한 운용과 조달의 미스매칭 발생 가능성:** 정부 주도로 내놓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중. 이에 소비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음. 문제는 이로 인해 은행들의 운용도 단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가령,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 3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했을 시, 해당 3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 2~3년만에 상환된다면, 이는 오히려 은행의 비용은 물론, ALM에도 부담 요인.<br>**금리 매력도 측면 소비자로부터도 외면:** 8월 신한은행 판매 물량이 8억원 미만인 것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들의 가장 주된 초점은 금리 수준. 이는 주담대 규모가 가계의 여타 대출보다 금액이 크고 원리금 분할 상환 규정으로 인해 가계의 현금흐름에 영향이 크기 때문. 즉,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음.<br>**금리 상승기 대비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은 필요하지만...:** 결국 향후 금리 상승기를 대비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담대의 고정금리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러나,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nudge가 필요하다고 판단. |
| | **(11/18) 코픽스 두 달 연속 상승 -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 증대**<br>-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57%로 5bp m-m 상승. 이는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임.<br>- 이에 주요 은행들은 18일부터 변동금리부 주담대 금리를 인상 예정.<br>- 한편,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최근 상승. 이는 금융채 금리 5년물의 상승에 기인. | **시장의 기대 -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다:** 장단기 금리 모두 최근 상승세를 시현한 가운데, 현재의 추세를 전환시킬 요인이 현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문제. 즉,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는 대출 한도 축소와 이자부담 증가라는 이중고가 지속될 전망.<br>**고민은 소비:** 정부의 정책 방향 중 하나는 내수 경기, 즉 소비 부양이라 판단. 하지만, 이와 같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유동성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심화될수록 가계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있음. 이는 다양한 예산을 활용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사항으로 판단. |
| | **(11/18) 2금융권 여신 감소 - 상호금융도**<br>- 가계대출 규제 강화 속 2금융권 여신은 감소세 시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이 8월 말 기준 93.4조원으로 전월대비 0.8조원 감소하였고, 신협도 1조원 가까이 감소.<br>- 이러한 감소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기업대출 접근도 제한적인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br>- 특히,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본격 돌입. 실제로 신협 중앙회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비조합원대상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결정. | **과거의 풍선효과와는 다른 양상 기대:** 과거에는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는 오히려 2금융권으로 자금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유발시키며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부담 및 우려를 야기. 그러나, 금번에는 과거와 달리 2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과거에 비해 고객 이탈 속도는 더딜 전망.<br>**풍선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약하다가 보다 합리적 - 그래도 약한 풍선효과는 은행에 긍정적:** 그래도 풍선효과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할 경우, 은행들은 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부담이 덜 하다는 강점이 있음. 이는 은행들이 건전성 혹은 NIM 방어 관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출 성장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 | **(11/19) 변동형 주담대 금리 6%대로 상승**<br>-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 역주행은 지속. 특히,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63~6.43%로 상단이 6%를 초과.<br>- 이는 시중금리 상승 및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에 기인. | **신규는 물론 기존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 변동형 주담대의 경우, 결국 신규도 상승했지만 기존의 판매된 금액들도 6개월 주기로 Re-pricing되며 상승 압력이 존재함. 특히, 이들의 경우 변동형 주담대 선택의 이유가 안정성보다 이자부담 완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 필요. 즉, 이들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현금 흐름 부담이 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음. 이는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요구로 이어질 전망.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Sector | News | Implication |
|---|---|---|
| 은행 | **(11/20) 금융당국, 내년 가계대출 고강도 기조 유지 - 총량 넘긴 은행은 페널티 부과**<br>-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년 가계대출 공급 계획과 관련 은행권과 조율에 나설 예정.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GDP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고강도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계획을 못 지킨 은행들은 내년 총량 축소하는 등의 페널티 적용 방침.<br>-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 한도가 거의 찬 은행들이 지점별로 한도를 관리, 연간 계획은 달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제한하기 어렵지만, 신규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도 대응 가능 언급. | **26년 가계대출 성장률도 3~4% 수준 관리 전망:** 시장의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내년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3~4%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br>**NIM에 긍정적:** 이는 여전히 내년에도 가계대출 금리의 가격 협상력은 은행에 있고, 은행의 대출 믹스도 또한 주담대 성장의 관리를 통해 우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 즉, 은행 NIM 방어에 대한 여력 제고를 의미.<br>**한편, 마이너스 통장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여파 확대:** 한편, 이전에는 초점이 주담대였다면, 향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등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 필요.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불거질 수 있음. |
| | **(11/21) 시중은행 이어 인터넷은행도 예금금리 인상**<br>- 인터넷은행들도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 이의 주된 배경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중장기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지목. 이와 더불어 투자시장으로의 자금 이탈과 더불어 1년 전 판매된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재예치도 일부 작용. | **은행권 신용대출 건전성 및 NIM 관점 긍정적:** 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우량 차주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전성 리스크는 크지 않고, 오히려 금리 측면에서 NIM에는 긍정적으로 판단.<br>**다만, 시스템 전반 관점에서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부담 요인:** 다만, 시스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주가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부담 요인. 특히, 해당 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자산 매입에 활용되었을 경우, 향후 자산 가격의 조정이 수반된다면 레버리지를 높였던 차주들의 부실화가 시장의 가격은 물론 금융사의 건전성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 | **(11/21) 환율 상승 - 은행 자본비율 관리 진땀**<br>-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은 CET-1 비율 관리에 주력.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1,500원대까지 상승할 경우, 주주환원에도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br>-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CET-1 비율은 1~3bp 가량 하락.<br>- 이에 은행 일부 부서는 고환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당 실무 유관 부서에서 일일 단위로 환율과 외환금리 등을 모니터링 진행 중. | **4Q 환율, CET-1 비율에 부담 불가피하지만, CET-1 비율 감내 가능한 수준 전망:** 은행들은 이미 3Q부터 환율 상승이 나타났고, 작년 말 급등 경험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CET-1 비율 개선에 나선 바 있음. 이에 3Q CET-1 비율은 경상 관리 수준 이상으로 유지 혹은 일부 개선까지 시현. 즉, 4Q 추가적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은 목표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br>**다만, 관건은 RWA 관리 - 연말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가능할 전망:** 다만, 관건은 RWA 증가율 관리가 될 것. 이미 은행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3Q부터 관리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통상 4Q에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은행들은 부실자산 등의 정리를, 기업들은 부채비율 관리 등을 위해 RWA 감소 압력이 커지는 점도 고려 필요.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Sector | News | Implication |
|---|---|---|
| 증권 | **(11/18) 불장에 웃던 증권사, 채권가격 급락에 울상**<br>- 시장금리 급등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권사의 채권 운용 실적이 타격을 받고 있음<br>- 상위 5개 증권사의 채권관련수익은 3.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400억원 감소<br>- 증권사들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거래 증가로 위탁수수료 수익을 통해 실적을 방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채권 운용 손익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보다는 거래대금 구조적 증가에 주목해야:** 증권사 운용손익은 24년부터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임. 이는 1)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및, 2) 운용 관련 비용(PF, 해외부동산 등)이 축소되었기 때문. 따라서, 손실이 나지 않더라도 증권사의 운용손익이 예년 대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 시황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는 운용손익보다는, 지속적인 이익 체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중 거래대금 레벨 증가 및 이자손익 기반 확대 등에 주목해야. |
| 보험 | **(11/20) 25년 보험료 2~5% 오른다…예정이율, 손해율, 해지율 3중 예실차 폭탄**<br>- 26년 1월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br>- 1)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 2) 손해율 상향 조정에 따른 순보험료 인상, 3) 해지율 가정 상향에 따른 사업비 회수 증가 등에 기인<br>- 이에 따라 26년 보험료는 적어도 2~5% 수준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 | **보험료 인상에 따른 평균 마진 하락 안정화 기대:** 보험사들은 1) 연초 무저해지보험에 이어, 2) 하반기 공시이율 하향 등 조치를 통해 다양한 상품에서 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물론 25년에는 출혈경쟁의 여파로 손해율 급등 등 부작용이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요율 인상 조치로 인해 점진적으로 손해율 증가세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 |
| | **(11/19) 기본자본 K-ICS 30%냐 50%냐, 출발선 및 완화조치에 업계 촉각**<br>- 기본자본 K-ICS 도입을 앞두고 업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br>-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첫해 적용 기준을 30% 또는 50% 중 어느 시점에 출발할 지 논의 중.<br>- 업계는 이에 더해 다양한 완화조치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CSM 일부를 기본자본으로 요구해 달라는 것 | **기본자본 비율 도입은 당장의 자본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겠으나, 배당제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닐 것:** 기본자본 비율 도입 강도와 시기에 대한 당국과 업권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보험사 별 언더라이팅 손익이 악화 사이클에 들어섰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의 모순 관련 이슈 등 부수적인 자본 규제 또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 수준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 다만, 본질적으로 보험사들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ICS 제도보다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모 축소 이슈가 선행되어야 할 것 |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 Sector | 국내 | 해외 |
|---|---|---|
| 2025-11-24 (월) | | 미국 10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br>미국 11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br>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br>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br>일본 증시 휴장 |
| 2025-11-25 (화) |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br>미국 10월 잠정주택판매지수<br>미국 9월 주택가격지수<br>미국 9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br>미국 1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br>미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br>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br>독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
| 2025-11-26 (수) |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br>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br>9월 인구동향 | 미국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br>미국 3분기 GDP 수정치<br>미국 10월 신규주택매매<br>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br>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br>미국 10월 내구재주문<br>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br>미국 주간 원유재고<br>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br>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br>일본 9월 경기동향지수 (수정치) |
| 2025-11-27 (목) | 금융통화위원회<br>국회 본회의<br>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미국 증시 휴장<br>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br>유로존 10월 총통화(M3) 공급<br>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br>중국 10월 공업이익 |
| 2025-11-28 (금) | 10월 산업활동동향<br>10월 관광통계 | 미국 증시 조기폐장<br>미국 블랙프라이데이<br>미국 11월 시카고 PMI<br>독일 11월 실업률<br>독일 10월 소매판매<br>독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br>영국 11월 주택가격지수<br>일본 11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br>일본 10월 산업생산 (예비치)<br>일본 10월 건설수주<br>일본 10월 신규주택착공건수<br>일본 10월 소매판매 (예비치)<br>대만 3분기 GDP (확정치) |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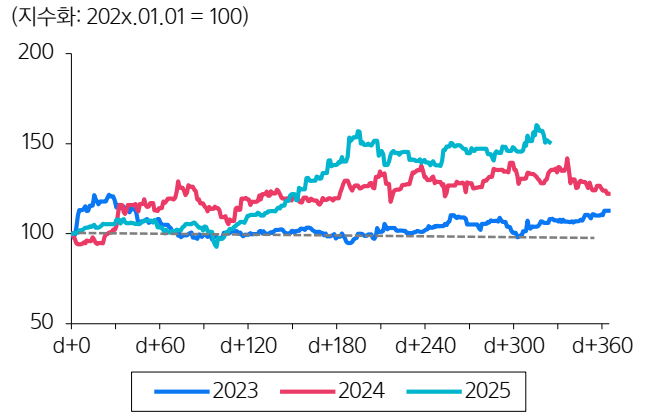
## 1.3 주가 Performance

| 업종 | 종목 | 시가총액 | 주가 | 2025E | | | | | 주가 Performance (%) | | | |
|---|---|---|---|---|---|---|---|---|---|---|---|---|
| | | | | 주주 환원율 | PBR | ROE | PER | EPS Growth | | | | |
| | | (조원) | (원) | (%) | (배) | (%) | (배) | (%) | 1W | 1M | 1Y | YTD |
| 지수 | 코스피 | 3,082.1 | 3,853.3 | | | | | | (3.9%) | (0.8%) | 55.3% | 60.6% |
| | KRX은행 | 165.8 | 1,256.8 | | | | | | (4.1%) | 1.7% | 36.7% | 50.7% |
| | KRX증권 | 50.1 | 1,467.2 | | | | | | (7.4%) | (5.8%) | 89.3% | 99.1% |
| | KRX보험 | 74.4 | 2,500.1 | | | | | | (5.6%) | (3.4%) | 23.0% | 31.7% |
| | 결제 지수** | 1.390 | n/a | | | | | | 0.7% | 1.7% | 55.8% | 55.3% |
| 은행 | KB금융 | 46.0 | 120,500 | 52.2 | 0.8 | 10.8 | 7.5 | 18.7 | (6.9%) | 4.1% | 23.8% | 45.4% |
| | 신한지주 | 37.4 | 77,000 | 45.5 | 0.7 | 10.2 | 7.3 | 20.3 | (3.3%) | 3.9% | 38.7% | 61.6% |
| | 하나금융지주 | 25.3 | 91,000 | 45.1 | 0.6 | 10.5 | 6.2 | 11.9 | (3.6%) | 2.7% | 47.7% | 60.2% |
| | 우리금융지주 | 19.0 | 25,950 | 37.1 | 0.6 | 10.5 | 5.9 | 5.4 | (3.2%) | (1.0%) | 54.6% | 68.8% |
| | 기업은행 | 16.1 | 20,250 | 32.0 | 0.6 | 9.1 | 6.3 | 3.8 | (1.9%) | 3.3% | 37.2% | 41.3% |
| | BNK금융지주 | 4.7 | 14,920 | 38.0 | 0.5 | 8.2 | 5.8 | 14.1 | (3.1%) | 4.5% | 51.5% | 44.3% |
| | JB금융지주 | 4.4 | 23,150 | 37.5 | 0.4 | 9.1 | 5.0 | 122.8 | (6.1%) | 1.8% | 23.9% | 42.2% |
| | iM금융지주 | 2.3 | 14,120 | 44.6 | 0.8 | 13.3 | 6.3 | 5.2 | (2.1%) | 4.5% | 66.3% | 72.6% |
| | 카카오뱅크 | 10.1 | 21,250 | 45.0 | 1.5 | 6.9 | 21.9 | 5.2 | (3.4%) | (10.1%) | 0.7% | 1.0% |
| 증권 | 미래에셋증권 | 12.1 | 21,150 | 40.8 | 1.0 | 9.5 | 13.7 | 25.9 | (9.6%) | (10.9%) | 142.8% | 163.4% |
| | NH투자증권 | 7.3 | 20,550 | 41.2 | 0.8 | 10.8 | 8.2 | 22.6 | (4.0%) | (1.0%) | 52.2% | 47.3% |
| | 한국금융지주 | 8.5 | 153,100 | 19.4 | 0.8 | 17.7 | 5.3 | 73.3 | (9.8%) | (12.0%) | 105.8% | 114.7% |
| | 키움증권 | 6.9 | 262,000 | 28.2 | 1.1 | 17.7 | 6.7 | 25.1 | (9.0%) | (2.1%) | 110.4% | 125.5% |
| 보험 | 메리츠금융지주 | 19.2 | 109,800 | 50.6 | 1.9 | 23.5 | 8.3 | 9.9 | (9.9%) | (6.0%) | 5.8% | 5.6% |
| | 삼성화재 | 21.6 | 470,000 | 42.6 | 1.3 | 13.2 | 10.0 | 6.1 | (5.0%) | 3.4% | 26.5% | 31.1% |
| | 삼성생명 | 29.3 | 146,400 | 44.8 | 0.7 | 6.8 | 11.9 | 11.5 | (4.7%) | (8.3%) | 40.0% | 54.4% |
| | DB손해보험 | 8.4 | 119,300 | 25.1 | 1.2 | 20.3 | 5.9 | -5.4 | (9.9%) | (9.5%) | 11.3% | 16.1% |
| | 한화생명 | 2.6 | 2,980 | 0.0 | 0.2 | 5.8 | 4.2 | -11.7 | (4.8%) | (5.7%) | 8.8% | 21.1% |
| | 현대해상 | 2.5 | 27,700 | 0.0 | 0.5 | 17.7 | 2.9 | -15.8 | (4.5%) | (0.2%) | (0.5%) | 12.1% |
| 결제 | 카카오페이 | 6.6 | 49,200 | n/a | n/a | 2.8 | 137.7 | 흑전 | (5.4%) | (9.2%) | 116.7% | 87.4% |
| | NHN KCP | 0.7 | 16,410 | n/a | n/a | 16.4 | 14.3 | 2.3 | (2.0%) | (0.6%) | 124.8% | 131.1% |
| | KG이니시스 | 0.3 | 10,510 | n/a | n/a | 8.9 | 4.2 | 68.0 | (1.5%) | 0.3% | 15.5% | 18.9% |
| | KG모빌리언스 | 0.2 | 4,715 | n/a | n/a | 10.7 | 5.3 | 13.0 | (3.7%) | (6.6%) | 11.9% | (0.6%) |
| | 나이스정보통신 | 0.3 | 26,250 | n/a | n/a | 7.4 | 6.9 | 174.3 | 14.9% | 17.4% | 44.4% | 46.3% |

참고: 11/21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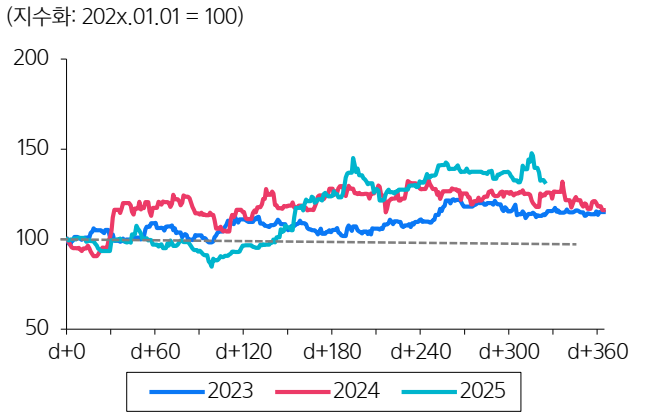
##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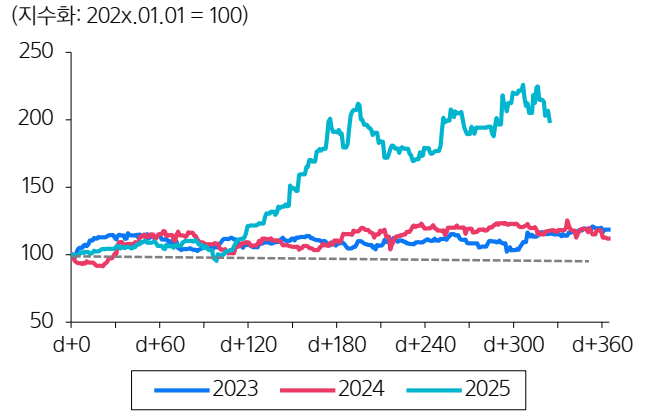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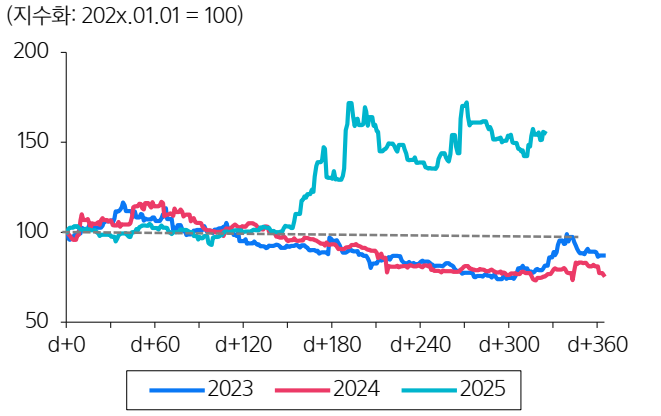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증권 업종 지수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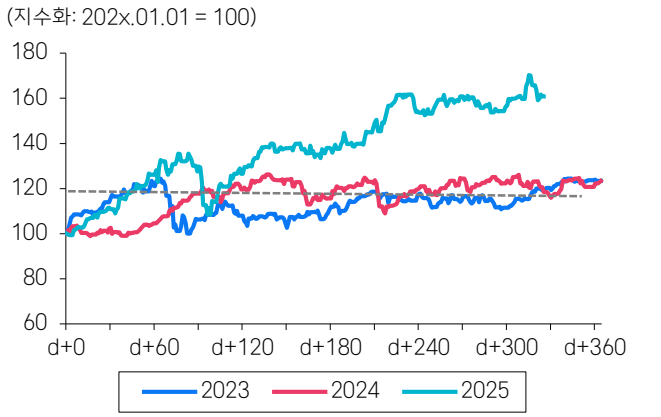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1.5 해외 Peer 점검

| Sector | 지역 | 종목 | 시가총액 (USDb) | 25E Valuation | | | | | 주가 Performance | | | |
|---|---|---|---|---|---|---|---|---|---|---|---|---|
| | | | | 주주 환원율 (%) | PBR (배) | ROE (%) | PER (배) | EPS growth (%) | 1W (%) | 1M (%) | 1Y (%) | YTD (%) |
| 은행 | 미국 | JP Morgan | 811.3 | 83.2 | 2.4 | 16.7 | 14.7 | 2.9 | (1.8) | 1.2 | 19.9 | 24.3 |
| | | Bank of America | 376.5 | 27.9* | 1.3 | 10.6 | 13.4 | 18.1 | (2.0) | (0.4) | 9.7 | 17.3 |
| | | Citigroup | 176.6 | 122.3 | 0.9 | 7.6 | 13.0 | 27.9 | (1.6) | 2.1 | 41.3 | 40.2 |
| | | Wells Fargo | 260.9 | 117.0 | 1.6 | 12.3 | 13.1 | 18.0 | (2.3) | (1.6) | 9.4 | 18.3 |
| | | PNC Financial | 73.3 | 59.4 | 1.4 | 12.2 | 11.8 | 15.4 | 1.6 | 2.8 | (11.0) | (3.0) |
| | 유럽 | Banco Santander | 150.8 | 64.3 | 1.3 | 13.2 | 9.6 | 14.5 | (5.2) | 5.2 | 101.6 | 97.2 |
| | | Unicredit | 112.7 | 88.7 | 1.5 | 16.6 | 9.0 | 11.8 | (2.5) | 2.5 | 65.0 | 63.1 |
| | | BBVA | 117.4 | 54.3 | 1.7 | 17.5 | 9.6 | 5.0 | (3.7) | 4.8 | 93.1 | 87.3 |
| | | ING Group | 74.8 | 107.9 | 1.3 | 12.1 | 10.9 | (1.2) | (3.9) | 4.2 | 48.4 | 43.7 |
| | | Lloyds | 67.3 | 94.6 | 1.3 | 11.0 | 14.0 | 0.0 | (4.8) | 1.9 | 60.1 | 59.0 |
| | | Barclays | 71.5 | 63.4 | 0.9 | 9.7 | 10.6 | 0.0 | (5.2) | 1.4 | 52.5 | 46.3 |
| | 일본 | Mitsubishi UFJ FG | 183.9 | 62.4 | 1.3 | 10.4 | 12.7 | 17.2 | (2.7) | 6.8 | 30.7 | 29.2 |
| | | Sumitomo Mitsui FG | 109.6 | 56.9 | 1.1 | 9.6 | 11.8 | 25.5 | 2.7 | 10.3 | 21.5 | 18.2 |
| | | Mizuho FG | 82.1 | 32.9* | 1.2 | 10.3 | 11.8 | 24.9 | (2.6) | 5.7 | 34.6 | 33.3 |
| | 중국 |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 384.5 | 30.1* | 0.6 | 9.3 | 6.4 | 1.6 | (2.6) | 5.4 | 39.7 | 22.8 |
| | | China Construction Bank | 279.1 | 29.9* | 0.6 | 10.0 | 6.3 | (1.3) | (3.1) | 2.5 | 37.8 | 24.8 |
| | | Agricultural Bank of China | 384.5 | 30.8* | 0.7 | 10.0 | 7.4 | 4.0 | (6.6) | (4.5) | 48.5 | 30.0 |
| 보험 | 미국 | Berkshire Hathaway | 1,089.9 | N/A | 1.5 | 9.0 | 19.8 | (38.4) | (1.1) | 2.7 | 5.7 | 10.9 |
| | | AIG | 41.0 | 197.3 | 1.0 | 9.3 | 12.0 | 흑전 | (2.3) | (3.7) | (0.1) | 4.3 |
| | | Travelers Insurance | 64.7 | 65.7 | 2.0 | 19.1 | 11.5 | 17.3 | 1.0 | 7.8 | 10.5 | 20.4 |
| | 유럽 | Allianz | 161.3 | 78.5 | 2.3 | 18.2 | 12.8 | 12.5 | (1.2) | 2.9 | 24.6 | 22.7 |
| | | AXA | 93.2 | 60.3* | 1.7 | 17.2 | 8.8 | 23.8 | (0.9) | (3.2) | 11.9 | 11.1 |
| | | Generalli | 58.9 | 56.8* | 1.6 | 13.7 | 12.0 | 13.9 | (2.2) | 0.5 | 22.2 | 21.0 |
| | 일본 | Tokio Marine | 68.5 | 40* | 2.0 | 20.0 | 10.5 | (2.8) | (6.4) | (6.7) | (2.5) | (3.3) |
| | | Daiichi Life Insurance | 29.2 | 46.4* | 1.2 | 11.1 | 12.1 | (11.9) | 1.4 | 13.0 | 30.2 | 16.8 |
| | 중국 | Ping An Insurance | 142.9 | 35* | 1.0 | 14.1 | 7.2 | 9.7 | (5.1) | 2.2 | 27.3 | 23.6 |
| | | China Life Insurance | 152.2 | 16.8* | 1.2 | 23.3 | 5.6 | 22.6 | (5.5) | 4.0 | 79.0 | 76.3 |
| | | PICC P&C Insurance | 50.8 | 33.9* | 1.4 | 16.0 | 8.8 | 39.9 | (5.2) | (7.8) | 48.3 | 44.9 |
| 증권 | 미국 | Goldman Sachs | 241.1 | 106.6 | 2.2 | 14.3 | 15.9 | 20.3 | (2.1) | 3.1 | 28.4 | 35.2 |
| | | Morgan Stanley | 251.4 | 66.7 | 2.5 | 16.1 | 16.0 | 24.2 | (3.5) | (0.7) | 17.4 | 25.8 |
| | | Charles Schwab | 165.4 | 92.8 | 3.6 | 20.2 | 19.6 | 54.7 | (4.1) | (4.3) | 11.4 | 22.3 |
| | | Robinhood | 96.6 | 39.5 | 10.8 | 22.6 | 52.8 | 30.3 | (12.4) | (20.1) | 192.8 | 188.0 |
| 카드 | 미국 | American Express | 243.1 | 78.2 | 7.9 | 34.5 | 22.8 | 10.4 | (1.2) | (0.6) | 17.1 | 18.9 |
| 결제 | 미국 | VISA | 642.4 | 21.7* | 16.1 | 63.1 | 25.9 | 24.4 | (0.6) | (5.2) | 5.8 | 3.8 |
| | | MasterCard | 485.3 | 18.6* | 59.9 | 203.6 | 33.1 | 17.6 | (1.0) | (5.8) | 3.8 | 2.6 |
| | | PayPal | 56.7 | 2.6* | 2.9 | 25.4 | 11.8 | 28.7 | (3.6) | (13.0) | (30.2) | (29.0) |
| | 유럽 | Adyen | 47.2 | 0* | 7.7 | 22.5 | 38.1 | 15.3 | (7.6) | (14.0) | 0.8 | (9.5) |
| 핀테크 | 미국 | Block | 37.6 | 0* | 1.6 | 6.7 | 25.1 | (45.7) | 2.4 | (21.1) | (32.9) | (27.1) |
| | | Upstart | 3.6 | 0* | 4.9 | 15.9 | 76.4 | N/A | (4.2) | (28.8) | (49.9) | (39.8) |
| | | Affirm | 21.3 | 0* | 5.4 | 10.6 | 64.6 | 564.7 | (8.7) | (14.8) | (3.3) | 5.7 |
| | 중국 | LuFax | 2.4 | N/A | N/A | (2.8) | N/A | 흑전 | 0.0 | 0.0 | 19.6 | 10.9 |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1/21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